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다

bkl 재단법인 동천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증진과 법률문화 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출발해 지금의 동천이 있기까지 더 낮은 곳을, 더 어려운 곳을 바라봤던 유욱 이사장을 만났다.

>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이사장님과 재단법인 동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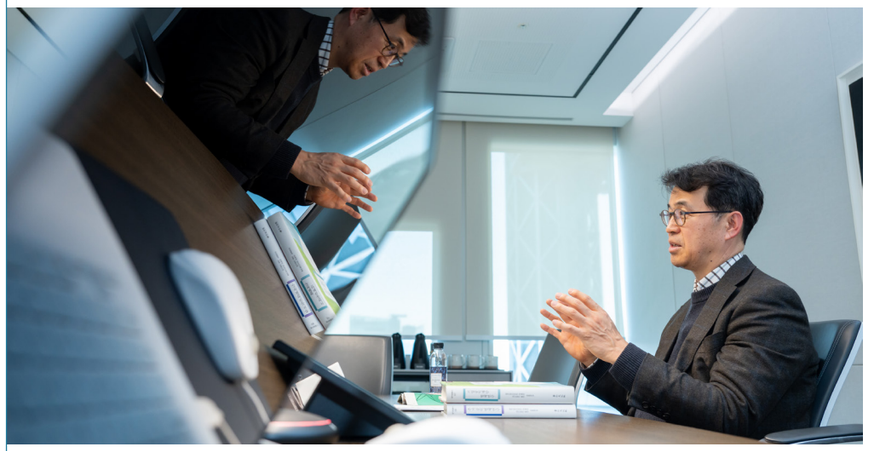
A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욱입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태평양 창업부터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 지향성을 실천하기 위해 2009년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입니다. 장애인, 탈북민, 난민, 이주외국인,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 소송, 자문, 공익법제 연구 및 입법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재단법인 동천의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제가 태평양에 입사한 지 올해로 33년이 됐습니다. 33년 전 입사 당시 태평양을 설립하신 김인섭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가치 집단’과 ‘겟 투게더(get together)’입니다. 태평양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닌, 우리 사회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가치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치 집단의 실천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2001년에 공익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집행부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신 덕분에 메이저 로펌 최초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이사장님께서는 재단법인 동천 설립에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현재는 동천의 이사장으로서 꾸준히 공익의 길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오신 이사장님만의 철학이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에 중점을 둔 사례가 궁금합니다.

A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훈이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라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공익 활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오는 데에 기본이 되는 철학적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동대문의 무료 급식 시설 ‘밥퍼’가 철거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 소송을 대리해서 작년 말 1심에서 승소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평양과 동천은 단순히 돈만 버는 법률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공익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A 사실 전문 법률집단에서 ‘공익 활동’은 남들이 걸어가지 않은 길이었어요. 로펌들의 공익 활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길을 개척하게 됐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필요한 일이고, 공감을 확보해서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뜻하는데,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트너 변호사의 삶과 공익 변호사의 삶 가운데서 균형을 찾는 일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면서도, 버텨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순 없겠지만, 어느 순간 제 공간이 넓어지고 젊은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동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Q 우리 사회에 공익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점이나 주목하고 계신 현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저는 기업 공익재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선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과 ‘발렌베리 그룹’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는 발렌베리 그룹의 수익이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곳은 발렌베리 재단인데요. 발렌베리 그룹의 수익은 발렌베리 재단으로 모여 사회에 환원됩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성숙의 성과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 ‘Social’에 해당하는 것이 공익재단이 되겠죠. 기업 공익재단의 활성화로 시민단체와 자선단체의 처우도 개선하고, 큰 의미에서 돈의 흐름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목하는 현안은 많지만, 그중 하나로 ‘주거 공익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3년에 주거공익법센터를 개소해 전세 사기 문제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법 정책의 ‘싱크 탱크’가 되고 싶어요”



Q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A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저희는 법률 전문가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로 전문성을 살려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마치 의사들이 의료 봉사를 하는 것처럼요. 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하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Q 이사장님이 목표하시는 향후 재단법인 동천의 미래상과 비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공익법 정책의 ‘싱크 탱크’가 되고 싶어요. 이론적인 연구를 토대로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천은 그것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첫째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현장에 가서 서 있어라.’, 생각만 하고 나중에 하지 말고 조그마한 실천의 자리에 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잘 버텨라.’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선택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르지만, 선택함으로써 돌파구를 찾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넘어지고 화살을 맞더라도 그 화살을 맞으며 버텨내면 얼마 뒤 보람과 의미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